“사명대사 호연지기 잊지 말자”

팔공총림 동화사, 사명대사 추모다례재 · 백일장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는 6월 1일 전국 각 사찰에 모셔진 사명대사 진영과 동화사에 봉안된 보물 제1505호 사명대사 진영 영인본를 한자리에 모아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사명대사 그리기 백일장을 열었다.〈사진〉

다례재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지선 스님, 장세철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취타대와 함께 사명대사 진영을 대웅전에서 통일대불광장 특설무대까지 이운해 종사영반, 헌다, 헌화, 봉행사,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사명대사가 울산포 적진의 심장에 비수를 날리던 호연지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누란의 위기에서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이 오늘날 우리사회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동화사는 오는 10월까지 사명대사를 주제로 사명대사 진영 전시, 승병체험, 승탑돌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인재 거듭나길”

영천 은해사, 선화여고 수계법회 · 템플스테이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고 수계법회 및 템플스테이를 경내 중악관 육화원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날 증명법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선본사 주지 법성 스님, 수태사 주지 성본 스님, 이연화 신도회장, 김창열 은해사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봉오 선화여고 교장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증명법사 돈관 스님은 “수계의식은 불자로서 마음다짐을 새롭게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의식이다. 각자의 희망을 펼쳐나가는 데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한 뒤 마정수기와 연비로 수계자들에게 계를 내리고, 묵주를 전달하며 참된 부처님 제자로 거듭날 것을 기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해운정사, 정정복 신도회장 임명

조실 진제 스님 “더욱 정진하고 열심히 활동해 달라”



정정복 부산불교신도회장이 부산 해운정사 신도회장으로 임명됐다.〈사진〉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6월 3일 해운정사 원통보전에서 해운정사 신임회장에 정정복 회장(부산불교신도회장)을 임명했다. 조실 진제 스님은 초하루 정기법회 법문 후 정정복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그동안 신도회장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새롭게 모시게 됐다”며 “신임회장으로 더욱 정진하고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정복 회장은 “앞으로 부산불교 발전을 위해 스님들을 잘 모시고, 신도들을 부처님처럼 받드는 모습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복 회장은 부산시축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갑) 위원장,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유물로 본 범어사 호국역사

범어사 성보박물관 ‘佛法으로 국가 수호’ 특별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한 범어사 사명대사진영.

창건 당시부터 근대기까지
호국역사 담긴 유물 공개
10월 10일까지 전시 개최
범어사 사명대사 진영 등

범어사 창건역사가 담긴 〈범어사 창건사적〉과 ‘범어사 석가여래 사리탑비’, ‘국청사 금정산성승장인’은 호국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불교 호국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은 특별전 ‘불법으로 국가를 수호하다-선승에서 승군으로’를 전시중이다. 전시는 호국사찰로 창건돼 그 정신을 이어온 범어사의 역사를 주제로 담고 있다. 범어사는 〈범어사 창건사적〉에도 기록돼 있듯이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창건됐고,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승병들이 임진왜란에 활약하던 때 범어사 역시 승병으로 활약했으며, 이후 국청사와 해월사 승려들과 기간병역으로 배정돼 국가 수호를 위해 힘썼다.

이후에도 범어사의 호국사상은 끊이지 않았다. 민족 암흑기인 일제강점기에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고, 만세운동 및 대한승려연학독립선언을 주도했으며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선학원, 명정학교, 지방학림 등 교육기관을 설립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호국불교 정신을 가지고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가담, 조국광복에 공헌했다.

이번 전시는 2019년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범어사 3·1운동과 명정학교’ 특별기획전에 이어 열리는 특별전시이다. 범어사가 만세운동을 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시서는 △범어사의 호국창건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범어사 창건사적〉 목판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한 ‘범어사 사명대사진영’ △승병을 통솔할 때 사용한 ‘국청사 금정산성승장인’(부산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55호) △범어사의 승병활동을 보여주는 ‘범어사 금정산성 죽전마을 화살과 화살통’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범어사 3·1운동과 명정학교’ 특별기획전을 잇는 범어사 만세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유물도 선보인다. 유물은 △범어사 석가여래사리탑비 △안적사 지장시왕도 △범어사 경허스님 시판 등이다.

‘범어사 석가여래사리탑비’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백용성 스님 입적 후 탑비문과 찬(탑비내용)을 직접 썼으며, 범어사 만세운동의 주역 1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1919년 3월에 제작된 〈안적사 지장시왕도〉(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9호)는 대표적 불모였던 완호당(玩虎堂) 낙현(洛現) 스님(1869~1933)의 작품이다. 금어(金魚, 불화 최고 경지)로 칭송 받은 완호 스님은 일제강점기 문화 말살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완호 스님은 일제의 강요에도 불화의 화기(畵記)에 단 한 점도 일본 연호를 표기하지 않았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따르면 “현재 범어사 설법전 위치는 완호 스님이 작품 활동을 한 불화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불화소가 사라진 뒤 복천사로 완호 스님은 돌아가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또, 완호 스님이 불화 작품을 이어간 부산 영도 복천사는 항일독립운동가 양정욱의 은신처이자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라는 주장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범어사 성보 박물관은 “올해는 완호 스님의 탄생 150주기를 맞는 해이며 스님의 작품으로 다채로운 호국 전통 문화를 시민에게 선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범어사 경허스님 시판’은 명정학교의 시초가 된 범어사 선원 개설 당시 경허 스님이 직접 쓴 시를 목판으로 제작해 남겨둔 것이다. 선의 대가인 경허 스님의 입적 80주기를 맞아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이는 유물이다.

전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진행되며 전시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 (051)508-6139

“정토선(淨土禪) 수행가풍 진작”

서방사, 허운화상 사리탑 봉안 관정대사 입적 12주기 다례도



대한불교정토선종은 5월 2일 고성 서방사에서 허운화상 사리탑 봉안 및 관정대사 12주기 다례재를 개최했다.

정토 염불수행과 선 수행을 동시에 이어가는 대한불교정토선종이 허운화상의 사리탑 봉안과 관정대사 다례재를 봉행하고 수행 정신을 널리 알렸다.

대한불교정토선종(총무원장 등정)은 5월 2일 고성 서방사에서 허운화상 사리탑 봉안 및 관정대사 12주기 다례재를 개최했다. 허운화상 사리는 2001년 총무원장 등정 스님이 관정 스님에게 가사와 함께 거제 오성암에서 전달 받은 것이다. 사리탑에는 허운화상 사리 3과가 봉안됐다. 허운화상(1840~1959)은 중국 근대사에서 중국불교의 선풍을 지켜온 선지식으로 〈참선요지〉를 펴내 선 수행을 진작하고 널리 알려왔다.

관정대사 다례재는 △정토선염불 △관정대사 행장소개 △정토선종 종정 정암 스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관정대사(1924~2007)는 허운화상의 조동종 48대 전법제자로 선 수행을 이어오다 극락세계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 ‘정토선’을 익히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등정 스님은 “정토 염불수행과 선을 함께 닦는 선정쌍수 수행법을 잘 알아야 한다”며 “정토선 수행은 자성염불 단계, 일념 단계, 무념 단계 등 3단계로 나눠져 뚜렷한 로드맵이 제시돼 말세에 근기가 약한 중생을 위한 최고 수행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방사는 지역민을 위한 ‘제9회 고성보리수 축제’도 개최했으며, 축제는 노래자랑 및 보리수 따기 체험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행사에는 종정 정암 스님, 총무원장 등정 스님, 고성군사암연합회장 이암 스님을 비롯해 백두현 고성군수, 류병조 고성경찰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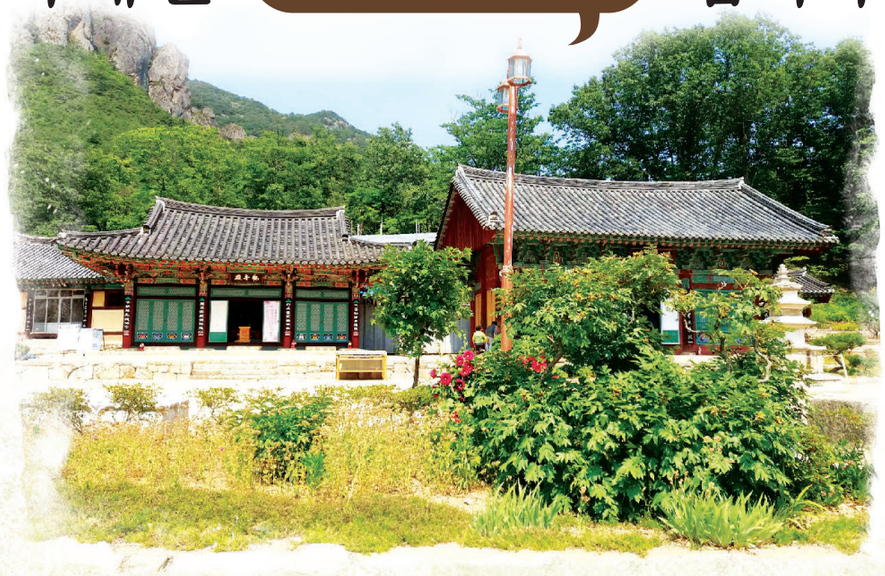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